

신한라이프, 통합법인 후 최대실적... 해외 사업은 '옥의 티'

작년 순익 전년 대비 15.1% 증가
보장성·시니어케어 성장 견인
베트남법인 3분기 순손실 70억
FC채널 확대 등 질적 성장 총력

신한라이프가 통합법인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질주하고 있다. 이영종 사장 취임 후 국내 무대에서는 순항을 이어가는 중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528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 7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신한라이프는 주요 금융주 계열 생보사 순익 1위 자리도 지켰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순익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2694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임에도 신한라이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신한라이프의 성장 요인으로는 이영종 사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전략이 꼽힌다. 이 사장은 취임 후 수익안정성을



신한라이프 사옥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작은사진).

/신한라이프

위해 보장성보험 포트폴리오 강화와 요양 및 시니어케어 신사업 확대에 주력해 왔다.

보장성보험 판매 호조로 지난해 누적 연납화보험료(APE)는 각 영업 채널 모두 증가해 전년 대비 73.4% 성장한 1조57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4분기 대비로도 120.7% 증가했다.

아울러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를 본격 출범시켜 요양 사업에 진출했고 지난해 11월 분당데이케어센터를 선보였다. 올해엔 경기 하남시에 도심형 요양시설을 개소하고

오는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 건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2024년 차별화된 고객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영업 모델을 도입하고 시장트렌드에 맞는 혁신적 상품을 적시에 공급해 출범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무대에서 순항 중인 이영종 사장의 신한라이프는 해외 사업에서는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2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으나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옥의 티'다.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은 2022년 41억6800만원, 2023년 35억8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3분기에는 순손실 규모가 69억5700만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영종 사장의 남은 숙제이자 주요 과제로 해외사업이 꼽힌다. 이 사장은 신년사에서 "글로벌 법인은 베트남 환경에 맞는 한국형 프로페셔널 FC채널을 구축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엔 베트남법인 출범 이후 첫 번째 'FC채널 영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영업력 강화의 첫 발을 뒀다. FC채널은 작년 2월 100여명으로 출범했으나 올해 54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베트남법인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조직이나 영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사업 투자와 함께 영업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입원일액 없으면 할인 The라이트 건강보험

삼성생명은 최근 7년 또는 10년 이내 입원·수술일액이 없다고 추가고지(건강고지)할 경우 일반고지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삼성 The라이트 건강보험(무배당, 무해약환급금형)'을 오는 11일부터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고지형 10년 기준 기존 일반 고지 상품보다 최대 2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고지형 상품의 추가고지기간동안 장염, 요실금, 식중독과 같은 경증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은 예외로 두고 있어 완화된 인수 기준을 통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통합암진단특약',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 '통합심장관련질환진단특약' 3가지 특약으로 26가지 폭넓은 암·뇌·심혈관질환 대비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 태아이상 산모 진단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가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현재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업계 최초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임신부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반증 진단비'라는 담보를 통해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한 반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8월23일 '워터밤 속초'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

한화손해보험은 국내 초대형 워터 페스티벌인 '워터밤 속초 2025(WATERB OMB SOKCHO 2025)'에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 23일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에서 열리는 '워터밤 속초 2025' 후원을 통해 여성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응원할 예정이다.

워터밤 속초 2025는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압도적인 워터 퍼포먼스가 결합된 무대로 매년 관객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 국내 대표 여름 축제다. /김주형 기자

강남 신고가, 외곽은 하락... 서울 집값 온도차 뚜렷

강남·서초, 거래마다 최고가 경신
도봉 등 외곽, 70% 미만 가격 거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권은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종전 최고가 대비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46%가 종전 최고가의 90% 이상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역별 차이는 확연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거래 중 30% 이상이 종전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도봉구에서는 거래 중 30%가 최고가 대비 70% 미만의 가격에서 이뤄지는 등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격차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강남·서초구는 종전 최고가 대비 90% 이상에서 거래된 비중이 각각



'래미안원베일리' 전경.

/래미안원베일리 공식 홈페이지

86%, 87%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39%)와 서초구(34%)에서는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강남권은 여전히 견조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뽕뽕한 채' 선호 현상도 강남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40억원에 거

래되며 종전 최고가(35억1000만원)를 넘어섰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역시 전용 60㎡가 62억원에서 71억원으로 상승하는 등 강남권 주요 단지는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외곽 지역에서는 분위기가 정반대다. 노원구(10%), 도봉구(13%), 강북구(15%), 금천구(15%) 등에서는 90% 이상 가격에서 거래된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도봉구와 노원구

는 거래 중 30%가 종전 최고가 대비 70% 미만 가격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매수세가 이어지는 등 국지적인 선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떨어져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남과 외곽 지역의 격차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권 아파트 가격 강세는 주거 선호도, 학군, 교통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외곽 지역은 수요층이 제한적이어서 단기간 내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가격 차이는 앞으로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지원 기자 jjw13@

신한은행, 흥플러스 협력사 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이 흥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납품대금 입금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흥플러스 협력업체에 ▲ 최대 5억 원 범위 신규 대출 지원 ▲ 대출만기 시 원금상환 없이 만기 연장 ▲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게는 연

체 이자도 감면한다. 협력업체가 흥플러스에 일정 기간 납품한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의 납품대금 입금 지연 확인 서류 없이도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흥플러스의 회생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예보,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1815억 회수

상장 통해 발행주식의 10% 매각
매각 이후 잔여지분은 83.85%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IPO)을 통해 공적자금 1815억원을 회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 상장을 통해 보유 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698만2160주)를 매각했다. 매각 이후 잔여지분은 83.85%다.

서울보증보험의 이번 상장은 100% 구주매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많은 투자자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안정적인 수익성, 성장 잠재력 등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로 주주가 됐다.

예보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주주환원정책, 경영효율화 등이 충실히 이행되어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대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